

보도시점 2024. 5. 2.(목) 14:00 배포 2024. 5. 1.(수) 17:00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수립·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습니다.

-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 -

- ✓ **[배경]**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❶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❷투자자가 공시된 계획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함

*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으로 신설 예정(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 ✓ **[의의]** 주로 이미 발생했거나 결정된 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는 기존 공시와 달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미래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하는 공시이므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지원

- ✓ **[경과]** 기업·투자자·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 기업규모별 릴레이 간담회, 기관투자자·외국계증권사 대상 IR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가이드라인(안)에 균형감 있게 반영*

* 자율성 원칙 강조, 기업의 불성실공시 관련 우려 해소, 투자판단에 의미있는 재무·비재무지표 작성사례의 풍부한 제시 등

- ✓ **[주요내용]**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기업은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부문별 투자,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공시

- ✓ **[계획]** 금일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확정하고,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

5월 2일(목),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26일 1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개요 〉

- 일시 : '24.5.2.(목) 14:00~16:00 / ○ 장소 : KRX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
- 인사말 :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 ○ 축사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 주제발표 : 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한국거래소 정지헌 상무)
②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
- 사회자 : 고려대 경영대학 조명현 교수
- 패널토론 :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박민우 자본시장국장, 한국거래소 정지헌 상무,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
[투 자 자] 국민연금공단 이승근 주주권행사1팀장, JP모건 김현정 주식부문대표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왕겸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상장기업] CJ제일제당 천기성 재경실 부사장, 고영테크놀러지 박현수 경영기획실장
[학 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동국대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

<부위원장 축사>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지난 2년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더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더해져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3가지 방향 및 제도개선 추진 내용

- 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등)
- ②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외국인ID폐지, 외환시장 개방·연장, ISA세제혜택 확대 등)
- ③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일반주주 보호, 배당절차 개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금일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과 관련하여,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well-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상장기업들도 이를 계기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정한 내재가치 또는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하여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유관기관도 세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우수 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지난 2.26일 1차 공동세미나를 통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정부 및 유관기관은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기업·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의견수렴을 지속해 왔다.

3.7일 학계·기업·투자자·유관기관 전문가 12명(각 3명씩)으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을 출범했고, 3~4월 중 4차례의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기업 밸류업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 향후에도 우수사례 발굴·전파, 내년 5월부터 실시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 마련 등과 관련하여 자문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3.14일 “기업 밸류업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핵심 사항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여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4대 연기금을 포함하여 200여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기업 밸류업을 매개로 기관투자자와 상장기업 사이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이 예상된다.

4.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에서는 기업 밸류업 표창(내년 5월부터 시행)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시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다각적·적극적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3대분야 8종의 인센티브(4.2일 발표)]

분야	인센티브	비고
세무 회계	① 5종 세정지원*	2.26일 발표
	②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4.2일 신규발표
	③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상장 공시	④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⑤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⑥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	
홍보	⑦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2.26일 발표
투자	⑧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 ①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Fast-Track (②R&D공제 사전심사, ③법인세 감면 컨설팅, ④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관련), ⑤가업승계 컨설팅

이 외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릴레이 간담회, 해외투자자 대상 IR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업 밸류업 관련 주요 간담회 · IR 추진경과]

일시	내용	대상
2.27일	해외기관투자자 대상 싱가포르 현지 IR (금융위·유관기관)	투자자
3.7일	「기업 밸류업 자문단」 Kick-off 및 1차 회의 (거래소)	기업·투자자
3.14일	기업 밸류업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 (금융위·유관기관) →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방향 발표	투자자
3.22일	주요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 간담회 (거래소·유관기관)	기업
3.25일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관련 해외기관투자자 IR (거래소·유관기관)	투자자
3.28일	「기업 밸류업 자문단」 2차 회의 (거래소)	기업·투자자
4.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 (금융위·유관기관) → 3대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 발표	기업
4.4일	대표기업(자산10조원 이상 코스피) 간담회 (거래소)	기업
4.11일	「기업 밸류업 자문단」 3차 회의 (거래소)	기업·투자자
4.15일	주요 외국계증권사 대상 IR (거래소)	투자자
4.17일	중견기업(자산2조원~10조원 코스피) 간담회 (거래소) → 기업의 “계획 미달성시 불성실공시 제재 우려” 관련 면책규정 적용방안 발표	기업
4.18일	재계 10대 그룹 대상 설명회 (거래소·유관기관)	기업
4.23일	「기업 밸류업 자문단」 4차 회의 (거래소)	기업·투자자
4.26일	성장기업(코스닥 상장기업) 간담회 (거래소)	기업

금일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이에 맞추어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함께 개시된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차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지역소재 기업 대상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3Q), 연계 ETF 상장(~4Q) 등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역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대로 발표하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금일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은 원칙과 개괄적인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및 참고서식 등을 담은 “해설서”로 구성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의 특징을 지닌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특징]

자율성	▶ 참여여부, 작성내용 등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 보장
미래 지향성	▶ [기존 공시] 이미 발생·결정한 내용 중심 (예: 재무상태, 계약체결 등)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중장기적 목표 및 계획 중심
종합성	▶ 각종 공시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하는 종합적·입체적 보고서 성격
선택과 집중	▶ 가이드라인에 담긴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개별특성과 주주 및 시장참여자의 관심 등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수립
이사회 책임	▶ 기업 경영관리에 책임있는 결정기관인 이사의 적극적 참여 필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사의 보고·심의·의결 등 권장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현황진단]은 먼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들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다.

재무지표의 경우 시장평가(PBR, PER 등), 자본효율성(ROE, ROIC, COE, WACC 등), 주주환원(배당, 자사주소각, TSR 등), 성장성(매출·이익·자산 증가율 등) 등으로 분류하여 다각적인 지표를 예시로 제시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일반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들을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예컨대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지배주주 등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선정한 핵심지표의 시계열 분석, 산업평균 또는 경쟁사와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안내했다.

[목표설정]은 핵심지표 관련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로,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혹은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하다. 목표 또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미 예측정보 관련으로 거래소 공시규정* 등에 면책제도가 구비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보완할 수도 있다.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47(예측정보의 공시방법 등) 및 §32(불성실공시 적용예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6(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및 §31(불성실공시 적용예외)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다양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목표 및 계획과 임직원 보상 체계를 연계하는 계획을 마련한다면 기업의 추진의지를 강조하고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행평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가 권장되는 만큼 기업이 공시와 공시 사이에 계획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이행했는지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때, 단순히 어떤 투입을 했는지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 등 평가적 요소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장한다.

[소통]은 주주 및 시장참여자가 기업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소통의 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실적을 작성하도록 했다. 단순한 횡수 중심의 정량적 서술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것인지** 등 정성적인 측면의 계획 수립·이행이 중요하다. 예컨대,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주주총회 문화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주주 및 시장참여자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쌍방향 소통**을 확대할 수도 있다.

<작성 · 관리주체, 공시방법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의 사업·경영계획 등을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앞서 핵심특징에서 언급했듯이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이사회 의 개최일자나 논의내용 등을 함께 기재하여 계획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예측정보가 상당수 포함되므로 특정인에 대한 선별적 제공, 홈페이지 공개 등에 앞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먼저 공시해야 한다. 연 1회 등 주기적인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20XX년 X분기에 공시 예정”과 같은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별첨2>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별첨3>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안)

<별첨4> 세미나 발표자료1.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별첨5> 세미나 발표자료2.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담당 부서 < 총괄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02-2100-2644)
< 협조 >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책임자	상 무	정지현 (02-3774-8505)
		담당자	부 장	윤재숙 (02-3774-4500)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서재완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이동규 (02-3145-7570)
	자본시장연구원	책임자	실 장	이효섭 (02-3771-065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	책임자	본부장	김 춘 (02-2087-7008)
		담당자	팀 장	강택신 (02-2087-7150)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	책임자	그룹장	진성훈 (02-368-4553)
		담당자	팀 장	김 구 (02-368-4570)

1.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핵심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개별특성*에 따라 다양할 것임

* 산업의 특성·경쟁도,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리스크 등 외부요인 등

-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추가하여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소통 하는 것이 원칙임
-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

□ 지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2.26.)에서 밝혔듯이,

-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의 평가 및 투자 판단 지원을 통해,
 -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 시장참여자들은 이를 투자판단에 활용하여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

2.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 공시에 해당하는지?

□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음

□ 거래소 공시규정에는 이미 예측정보와 관련된 면책규정* 등이 마련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47(예측정보의 공시방법 등) 및 §32(불성실공시 적용예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6(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및 §31(불성실공시 적용예외)

1.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해당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 동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됨

* 해설서 [붙임] 참고서식의 공시문구 예시

“이 계획은 당사의 경영현황 및 영업전망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재무실적, 사업전망 등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영업환경과 시장상황, 회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보완을 하는 방법 및 기준은?

- ☐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 가능
 -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이유 및 변경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
- ☐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예: 내부결재, 이사회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 필요

4.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
-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상의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음
- 해설서(안)*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 **[현황진단]** 中 “경영상 비밀 이슈 등으로 인해 수치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대략적인 서술로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中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5.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는지?

- ☐ ❶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❷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향은 이미 발표되었음 (4.21일,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 등)
- ☐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